

시집 가는 날 2

시집가는 날 교과서 뒷 부분 대본입니다. 읽어 가면서 중간 중간 재미있는 장면을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맹노인] 해가 몇냐? (맹진사 고개를 설레저으며 헤엄치는 시늉을 하면서
무대를 가로질러 오락가락 한다 그러면서 눈으로 박참봉을 꾸짖는다 박참봉도
맹진사 시늉을 따르며 반대방향으로 뛰기시작한다 이것이 서로 교차된다)

[맹노인] (근심스런표정으로) 헤엄치면 못써

(맹진사 실망하여 다시 박참봉과 함께 배짓는 시늉 그러다가 맹노인의 반응을 기다린다)

[맹노인] (머리를 끄덕이며) 아무렴 뱃놀이가 덜 위험하지 (맹진사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는 시늉 맹노인 알아듣는다 맹진사 이번엔 신이나서 큰 기와집을 그린다
열심히 맹진사의 동작을 모방하는 박참봉 맹진사 사모관대에 말타고 오는 광경을
표현한다

[맹노인] (깜짝놀라) 도깨비? (박참봉 제물에 무서워져서 맹진사를 얼싸 안는다

맹진사 대청마루에 뛰어올라사 맹노인의 품에 안긴다 꼬치꼬치 마른 맹노인에
비해 곱절이나 되는 맹진사의 체구라서 어색하기 이룰데 없지만 맹노인 사랑스런
듯 아들을 어루만져 준다

[맹노인] 오냐 착하지 내아들아

[맹진사] (용기를 얻어서) 옹아요 아들 아들입니다 (맹진사 아버지가 이해하기
시작한 기회를 포착하여 맹노인의 품에서 뛰어나와 옆에놓인 목침을 품에 안고
쓰다듬으며 안방쪽을 가르킨다)

[맹노인] 네 새끼?

[맹진사] (더욱 용기를 얻어) 옹아요 갑분이 아버님 손녀딸 제 딸년 (맹진사
구르듯 뜰로 내려가서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한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배를 젓고
모관대를 하고 말타고 오는 시늉을하고 목침을 주워 자기등에 넣고 곱사등이가
되어 절룩거리며 무대 좌우로 오락가락 한다 박참봉도 꾸중을 들을세라 흥내에
열심이다 맹노인 지극히 만족하여 내려다 보고 웃는다 맹진사 그래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한다 눈물이 쏟아질듯 얼굴이 일그러지면서도 그대로
곱사등에 절름발이 시늉을 계속한다 (고조되는 음악)

[맹노인] 오냐 인제 그만 해뉘라 년 효자로다

(음악이 멎고 기진맥진하여 마루위를 우러러 보는 맹진사와 박참봉)

[맹노인] 옛날두 옛날 중국에 노대라는 효자가 있었느니라.

[맹진사]?

[맹노인] 팔순이 넘었는데도 아버님 즐겁게 해드리라구 때때옷을 입구

[맹진사]?

[맹노인] 참새를 잡아 내라구 백살 가까운 아버님께 응석을 부렸더니라

[맹진사]?

[맹노인] 너두 효자로다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구나 암 그래야지 오냐 나두
즐겁다

웃는다

[맹진사] (기가 막혀서) 아이구 아버지 노대가 아네요 미언 미언이가 (소리
지르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절망하고 만다) 아이구 하나님-----..

이때 삼돌이 숨이차서 나타난다

[맹진사] 인석아 여직 뭘했니? 뭘했어?

그래 손님은 어떻게 됐니?

[삼돌이] 아, 객실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서 밖에 나가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선비도 하인녀석도 간데가 없더랑게요!

[맹진사] 뭐야?

[삼돌이] 길이 멀지만 달이 밝으니까 호수를 돌아가기로 작정하구 떠난것
같구먼유!

[맹진사] 맙소사! 일났구나! 일났어! 맹진사 머리를 싸감고 주저앉아 버린다

[장] 제 5 장

[장] 제 5 장 돌다리가 걸린 마을어귀
둥근 달아래 마을 처녀들의 손과 손을 잡고 달노래를 부른다

[음악 8] 흘러가는 둥근달아 (마을처녀들)

[노래] 구름과도 헤치면서 흘러가는 둥근달아
우리님이 오시는걸 대낮처럼 밝혀주렴
강건너 동산너머 길을내어 밝혀주렴
두둥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둥근달아
오시는 님의얼굴 낮에보듯 밝혀주렴
나보고 웃는님을 달려가서 반기련다
초생달 그믐달이 시름주고 아픔줘도
보름달 둥근달아 너를보니 즐겁구나
꿈결같은 우리사랑아 너를이고 꽃이핀다

(이때 앵금이 소리치며 나타난다)

[앵금이] 애들아 애들아 (숨이차서) 너희들 얘기 못들었니?

[처녀들] 얘기? 얘기라니?

[앵금이] 글썸말이야 내말좀 들어보라니까 (귀속말 다시 귀속말로 번진다)

[곱씩] (놀래어)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니?

[처녀들] 에그머니나 그게 정말이야?

[앵금이] 호수건너 김판서댁네 마을에서온 선비 애긴데 틀림없이 그렇다는거야

[처녀들] 저걸 어째

(노래 도련님은 멋쟁이)

[여중] 호수건너 김판서댁 명재상 김정승댁

[여합] 그댁 도련님 멋쟁이 멋쟁이 중에 멋쟁이

[여중] 놀라운 지혜 뛰어난 문장 장원급제 떼어논 당상

[여합] 그댁 도련님 멋쟁이 멋쟁이중에 멋쟁이

[여중] 등에는 등산지고 한발을 절룩 절룩 멋쟁이중에 멋쟁이

[여합] 등에는 등산지고 한발을 절룩 절룩 김판서댁 도련님은 멋쟁이

(한바탕 떠나가게 웃음을 터트린다)

[곱단이] 애들아 저기오는게 갑분이 아니니?

[찍순이] 어디? 맞았어 갑분이야

[양금이] 애들아 우리 자리를 피해주자

[처녀들] 그래 자릴 피해주자구

(처녀들 일제히 자리를 피해준다)

이윽고 울상이된 갑분이와 달래는 이뿐이가 우측에서 뛰어나온다

[갑분이] 몰라 몰라! 다 듣기 싫단말야!

[이뿐이] 아가씨 정말 딱해죽겠네!

[갑분이] 호수속에라도 빠져 죽고만다니까 넌 왜 쫓아 다니며 이러느냔 말야!

[이뿐이] 그렇지만 아가씨! 마님 생각두 하셔야죠!

[음악 9] 죽는대도 난 못한다

(갑분이와 이뿐이)

[갑분이] 비켜나라 못난것아 죽는대도 나못한다

시구 뜯은 과일조차 입에 안대본 나를 보구

뽕추등에 절름발이 병신사내 짝맞춰 살라구

[이뿐이] 양반댁 어른끼리 점잖게 건넌혼사
괴롭지만 어찌나요 생김새야 어떻대두
착하고 어진 마음씨 그것이 귀한거죠

[갑분이] 점쟁이 딸년처럼 알기두 잘두안다
좋거든 너나 대신가 살렘 꼽추마누라 절름바리 여편네
갈갈대며 웃어주마

[이뿐이] 고을사람 손짓하고 만백성이 웃는대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
도련님 지팽이 되어 알뜰살뜰 피신다면
세상사람 뉘우치고 열녀칭호 누리실거예요

[갑분이] 이 맹추야 명신 사내 좋거들랑 네가대신 가서 실컨 살란말야!
[이뿐이] 아가씨는?
[갑분이] 열녀칭호가 떡해주고 열녀칭호가 옷해준다든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너나가서 실컨 살아라 (대사) 너나 가서 실컨 살어!

갑분이 좌측으로 달려간다

[이뿐이] (황급히) 아가씨 어디가세요? 아가씨!- (뒤를 쫓다가) 이일을 어찌?

(어쩔줄 모른다)

그때 뒷쪽에서 미언 나타난다
[미언] (은근하게) 아가씨! 마음씨 고운 아가씨!

이뿐이 돌아보다 놀란다

[미언] 내이름은 억쇠 아가씨 이름은 뭐라 부르는지 내가 좀 알 수 없을까요?
[이뿐이] (주춤거리다가) 난 난 아가씨가 아니라니까요!
[미언] 낮에 이마을 초입에서 만난 아가씨를 맹진사 영감댁에서 다시 만난것두
인연이구 게다가 이제 그만하면 구면인데 무엇을 그리 수줍어 합니까? 아가씨!-
[이뿐이] 난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갑분아가씨 몸종 이라니까요!
[미언] 이뿐이라 고운 이름이군!---- 우리 선달님은 풍류객이라서 뒷산에
올라가 달구경을 하신다우! 밤이 깊드라도 달이 밝으니 천천히 호수옆길로
돌아가자구 그러디다 그러니 이뿐 아가씨랑 이따 들어가 그렇게 전하시구려!
[이뿐이] 다들 찾고 계시는데 그냥가심 않돼요!

가시드라도 만나보고 가셔야 해요

[미언] 그런 걱정은 아가씨가 하지 않아두 되오 아가씨! (끌어안을듯 닥아선다)

[이뿐이] 아이 어째 이러세요?

[미언] 초록은 동색이라구 아가씨야말로 어째 이러우? 헤헤! 난 아까 낮에
우물터에서 처음 만날때 부터 아가씨가 맘에 들었다구!

이뿐이 피하고 미언이 자꾸만 맴돌며 닥아선다

[음악 10] 마음씨 고운 아가씨야 (미언)
우물물에 버들잎 곁들여
수줍게 내밀던 아가씨야 아가씨야
맘씨 고운 아가씨야
내 그대 맘에 들어 자꾸만 설레이네
하늘이 맺어준 인연 달님에게 사례하고
대낮처럼 밝은 이밤 마주보고 지새고 싶네
이뿐이 이뿐이 이름처럼 고운얼굴
마주보며 지새고 싶네

(대사) 아가씨 이뿐아가씨! (와락 끌어 안으려 한다)

[이뿐이] 에그떠니 이이가?-----..

이뿐이 미언이 팔을 벗어나려다가 저고리고름 한쪽을 뜯기우고 어쩔 줄 모른다

[이뿐이] 아니 내 옷고름이? 아니- (부끄러워 더 못견디고 앞가슴을 한손으로
눌르고 창황히 나왔던 쪽으로퇴장)

[미언] (저고리고름 한쪽을 아쉽게 들여다 보며
예쁜 아가씨 달아나고 손에 권건 옷고름 하나 이것을 어찌한다

이때 치운 후면에서 나타난다

[치운] 넌 게서 혼자 뭘 증얼거리구 있느냐?

[미언] (흠뻑하며) 아 아무것두 아닙니다 대략 둘러보실만한 곳은 둘러보셨는가요?

[치운] 둘러봤다 (혼잣말처럼) 산 좋고 물 좋고 달도 좋다마는 어리석은 사람의
허욕은 어데가나 마찬가지로구나

(노래 덧없는 한세상)

[치운] 덧없는 한세상 길어도 백년
양반은 무엇인가 권세는 무엇인가
언젠가 꽃잎지듯 떠나갈것을

[치운 미언] 어리석은 인생들끼리 궁리도 많네

미련한 인생들끼리 허욕도 많네
[치윤] 자 달도 좋으니 천천히 돌아가자꾸나
[미언] 네 (웃고름을 흔들며) 헤헤
[치윤] 그런데 그건 뭐냐?
[미언] 네 이좋은 마을 둘러보고 가는 정표예요
[치윤] 뭐야? 자 가자
[미언] 예 (두사람 사라진다)

이윽고 두사람의 뒤를 쫓는 맹진사와 삼돌이 창황히 나타난다.
삼돌이 웬지 모르지만 재미있어 못견디겠다는듯이 까불거린다 한손엔 뒧침을 들고
나왔다 뒧침을 등에 넣고 맹진사 앞으로 돌아가 보라는 듯이 절룩거린다 좌우에서
마을 처녀들 쏟아져 나온다 맹진사 삼돌이 등에서 급히 뒧침을 빼내어 자기가슴에
넣는다

더 웃으운 꼴이다 맹진사 비로서 주위의 처녀들을 의식하고 어쩔줄 몰라하다가
그래도 허세를 부리며 삼돌이 이끌고 퇴장한다
무곡 멋쟁이 멋쟁이----
처녀들 무더기로 방금 맹진사와 삼돌이 흥내를 낸다 적은 대바구니를 들고 나와 상대방
의 저고리를 들추고 넣어주는팀 꼽추가되어 절룩이는팀 이것을 다시 반대팀에서
뺏어 끌어안도 당황하는 시늉 이것이 군무가 된다

[음악 11] 찬물이나 퍼마시고

(마을 남녀들)

[여합] 양반의 감투 양반의 족보 그것이 뭐길래 사죽들을 못쓰나
보리죽을 마신대도 맘편히 살게지
팔자없는 권세 권세 기를 쓰고 잡으려다

[혼합] 우리진사 맹진사님 야단났네 거덜났네
찬물이나 퍼마시고 속이나 차리시구려

[남합] 양반의 감투 양반의 족보 그것이 뭐길래 안달안달 하는가
초가삼간 알량해도 맘편히 살게지
어찌자구 감투감투 기를 쓰고 써보려다가

[혼합] 우리진사 맹진사님 일터졌네 작살났네
찬물이나 퍼마시고 속이나 차리시구려

무대전체에 그로테스크한 군무가 광적으로 고조되는데

제 1 막 휘나레--

[장] 제 6 장

[장] 제 6 장 맹진사내 안사랑

전장에서 한달가량 지나서다 막이 오르면 대청마루에 기름불을 중심으로 갖을쓴
친척들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앉아 수근대고 있다

[친척가] 주자니 무남독녀 외딸이요

[친척나] 버리자니 대감댁이라----.

[친척다] 그야말로 맹랑하게 됐군!

[친척가] 뽕추도 뽕추나름이지 이걸 질름받이에 목불인견이라지 않나?

[친척나] 글썄 어찌자구 인륜 대사에 선두 아니 본담!

친척일동 크게 수근

[친척다] 기왕지사 갱론한들 소용이 없으니 무슨 묘책이라도 생각을 해내도록
해야지!

[친척가] 묘책? 꿈작없이 당한 일에 묘책은 무슨 개가 물어갈 묘책인가?

[친척나] 진퇴유곡이요

[친척다]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격이라니까!

일동 크게 수근하고 팔장을 낀채 고개를 떨구니 또다시 커다란 갖들의
동그라미-- 이때 좌측에서 급히 뛰어들며 일동의 침묵을 깨트리는 맹진사 친척들
일제히 고개를 쳐드니 갖의 동그라미가 깨진다

[맹진사] (기고만장하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묘책이 있어요 귀신도
나가자빠질 묘책이에요!

두째삼촌 세째삼촌 네째삼촌 종형님들 맹진사 동그라미속에 뛰어들어 주저
앉으며 뭐라 열심히 손짓 발짓-- 갖들 열심히 경청한다 한동안 듣고나서 머리를
끄덕인 후 새로 수근 거린다
모두 찬성하는듯 크게 머리를 끄덕끄덕--

[맹진사] (더욱 기고만장하여) 삼촌님네 종형님네들! 이제 아셨나요?

수완나름이예요! (연설조로) 양반댁이 양반댁에 대하여 일단 언약한 이상 혼인을
물르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며 특히 이번자리가 어떤 자리 이옵니까?

그야말로 세도명문에 노란자위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무남독녀 외동딸을
병신에게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무렴요! 병신사위를 맞고서야 무슨 낮으로
영의정 좌의정 평양감사 포도대장 조상어른들을 뵈울것입니까? 일언이

폐지하면 제팔년 희생 았구 설랑 대감사돈만 되고보면 이보다 감쪽같이
똑따먹는 노릇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궁무진한 수완! (팔을
걸어붙이며) 자 보십시오! 제 수완이 어떤가?

맹진사 손을 들어 무대 우측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무대 어두워지며 스포트가
우측 중문으로 쏟아진다 중문 열리며 한씨와 유모 그리고 나온다.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린 갑분이가 햇불을 든 교군들이 승교한채를 등대시키고 갑분이가 안으로
들기를 기다린다

[한씨] (교군에게) 운산골 맹초시택 알지?

[교군] 아 예!

[한씨] (승교안을 향해) 불르러 갈때까지 꼼짝말고 있거라 알겠니?

[갑분이] (머리를 내밀며) 알어요. 어머니. (눈물짓는다)

[한씨] 그럼 잘 부탁하네 유모!

[유모] 염려마세요 마님! 글썄 이런 후행길을 떠날 줄이야----. (눈물짓는다)

[한씨] (교군에게) 어서 뜨게! 되도록 사잇길로 가게!

[교군] 예 염려마쇼!

교군 1,2 승교를 들고 좌측으로 퇴장 유모 뒤따른다 한씨 지켜보는데 스포트
꺼지고

다시 무대 밝아지며 한씨의 모습도 사라진다

[맹진사] (친척들을 둘러보며) 아시겠쥬? 이것이 제 1 장! 그럼 다음은 제 2 장을
보십시오!

다시 무대 어두어지며 우측 중문앞에 스포트--

이뿐이 황급히 뛰어나온다 뒤따라 한씨가 달려나와 이뿐이를 잡는다

[이뿐이] 아가씨 어딜가세요?

[한씨] 쉬잇! 떠들지 말라니까!

[이뿐이] 나도 가요 아가씨!

[한씨] 이 계집애가?

[이뿐이] 아가씨!

[한씨] 착하지 내말좀 들어보렴! 애 이뿐아!

[이뿐이] 네?

[한씨] (타이른다) 아가씨가 집을 나가는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이뿐이] 그러니까 저두 따라간다니까요! 요즘 맘 아파지내는 아가씨 혼자
보낼수 없단말예요!

[한씨] 고맙다 네가 그토록 아가씨 생각해 준다니 허지만 아가씨 한동안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죽은거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뿐이] 네? 아가씨가 죽어요?

[한씨] 이를테면 말이다 그러니오늘부터는 네가 내딸이 되는거야! 네가
갑분이란 말이다 알아듣겠니?

[이뿐이] 호호호 마님두!

[한씨] 왜웃니? 왜웃어? (소리를 낮춰) 그러니까 네가 아가씨 대신 시집을
가는게야!

[이뿐이] 재가 대신 뭘 어쩐다구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한씨] 모두가 아가씨 위해서다

[이뿐이] 마님! 숫제 죽으면 죽었지 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럴순 없어요!

이때 맹진사가 더 못참고 뛰어나온다

[맹진사] 요 앙큼한것!

[이뿐이] 아이구머니 마님!

이뿐이 무서워서 도망치려 한다

[맹진사] 어텔가는게야? (뛰어내려와 붙잡는다)

오늘부터는 행랑방 걸어치우구 안방에서 자거라! 비단옷에 칠보단장 곱게하고
갑분이 방에서 거처하는게야! 알겠냐?

[한씨] (이뿐이를 이끈다) 자 어서 들어가 몸치장을 해야지!

[이뿐이] 마님! 난 죽어도 그런짓만은 못한다니까요!

[맹진사] 이 못난 계집애야 네덕에 좀 살자는데

왜 이리 앙탈이냐? (한씨에게) 이시간 이후부터 이뿐이는 갑분이다 잘
간수하구려!

[한씨] 어서 들어가자!

[이뿐이] 아이구머니 난 몰라! 난몰라!

한씨 오들오들 떠는 이뿐이를 억지로 잡아 끌고 중문으로 사라진다 무대
밝아지면--

[맹진사] (대청으로 올라가 자랑스러이 창조로)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네들! 귀신도 나가자빠질 묘책중에 묘책입죠! 모든것이
수완나름 궁하면 통한다고 제갈공명이의 씨가 따로 있나요? 헛!

[친척들] (메기듯) 따는!

[삼돌이] (술에 취해 크게) 안돼유 안된다닝께유! 아 이뿐이 나이차면 행랑방에
신방 차려 준다더니 세상에 이런 노릇이 어디 있는가 말예유?

친척들 예상치 않았던 삼돌이의 음성에 깜짝 놀란다 그야말로 맹진사의 기획에 전혀없는 레파토리인 것이다

[맹진사] 아니? (튀어나오며) 아니 이녀석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삼돌이] (창으로) 이 두 눈알 후비고서 푹푹히 샷샷이 볼것 몽땅 다 보았으니
도깨비 장난 하지마시고 약속이나 빨랑 지키랑께요

[맹진사] 헛! 세상에?----. (크게) 참봉 참봉 어데있나?

박참봉 삼돌이가 나타난 쪽에서 떼그르르 굴르듯 등장 역시 취했다.

[맹진사] 액기 맹추같으니라구! 오늘만큼은 이녀석을 멀리 떼놓으라구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박참봉] (혀꼬부라진 소리로) 마님! 글썄 이 녀석이 샐어요 샐어!

[맹진사] 아 참봉까지 허랑하게 이럴텐가?

[박참봉] 아 아네요 마님! 한두잔 오락가락 하다보니----. (딸꾹질) 글썄 이
녀석이 주막앞으로 갑분아씨 승교가 지나가는 걸 보구설랑 저두 이뿐이 헌테
장가든다구 환장을 해가지구설랑 쪼르르----.

[맹진사] 허 이거 집안 망치겠군!

두말말구 ㄸ집어 내가지 못할까?

[박참봉] 예 마님! (삼돌에게) 임마 이뿐인 벌써 짝이 노랴다니까----..

[삼돌이] 시끄러워요! 아 상전은 종놈한테 일구이언해두 괜찮은가유? 종이라구
속이는 상전이 개떡이지 뭐예유!

[맹진사] 뭐? 저놈이?

[삼돌이] 요강 단지 팔아 한일 속고쟁이 팔아 열일 개 떡양반이지 뭐예유?

[맹진사] (격노하여) 참봉! 저놈을 매우 다스리지 못할까?

[박참봉] 예 예 예! 삼돌아 이젠 트짜에다 리을 했다니까! 얌전히 따라온!

[삼돌이] 좋다구요 마님! 동네가 발각 뒤집히게 소문을 널테니까 두고
보시라구요! (일각문 양쪽에다 대고 크게) 이뿐아!

이 속알머리 없는 계집애야! 거기가 어떤자리라구 시침 뺨까구 들어앉아있어?
이뿐아 이것아!--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양반 등살에 난 망했네 우리 이뿐이
시집가고 처량한 삼돌이 목매러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양반 등살에
작살났네

[맹진사] 어이구 내팔자야! 생각지 않던 탈집이 집안에서 났구나!

맹진사 대청마루 끝에 앉는다 친척들의 갓이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며 수근 수근

[장] 제 7 장

[장] 제 7 장 맹진사내 마을들녘

마을 남녀들 흥겹게 어울려 모를 심고 있다

[무용 12] 들노래 (마을남녀)

[농부 1] 거 날씨 한번 화창하군 그래?

[농부 2] 그렇지만 우리 맹진사 나리만은 영 화창하지 못할꺼라구!

[농부 1] 내 말이 바로 그말이라니까!

마을 남녀 우르르 쏟아져 나오며

맹진사댁을 풍자하는 노래와 춤---

[음악 13] 쉬쉬가 그저 장땡 (추)

(마을 남녀)

[혼합] 갑분이가 이뿐이 이뿐이가 갑분이

맹진사댁 숨은곡절

쉬쉬 입다물어라 시냇물도 쉬쉬

큰탈난다 쉬쉬 알고도 모르는체 쉬쉬가 그저 장땡

이뿐이가 갑분이 갑분이가 이뿐이 양반댁에 숨은곡절 쉬쉬—눈감아라

물방아도 쉬쉬

동티난다 쉬쉬-- 보고도 못본체 쉬쉬가 그저 장땡

맹진사댁을 풍자하는 마을 사람들의 합창에 코믹한 군무가 되는데 뒤늦게
허겁지겁 박참봉 나타난다

[박참봉] (농부들에게) 여보게들! 자네들 왜 이러나? 왜이래?

(급히 똑위로 기듯 올라간다) 자 조용히들 내말을 좀 들어보라구! 예헴! 자네들두 이미 들어서 알구 있겠지만 머지않아 우리맹진사어른댁 갑분아가씨가 호수건너 김판서댁 도련님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사스런 혼인을 앞두고 이에 즈음하여 자네들에게 특별히 당부 말씀이 있어서 내 지금부터 전달하려는 것이다 아직 나두 충분히는 터득을 못했지만 잘들 듣고 새겨서 명심해 주기 바라네! 헤헴! 아마 자네들 가운데 소문을 들어 짐작하는 사람두 있을런지 모르네만 일테면 문제의 촛점인즉은 헤헴----. 이점을 잘 새겨들어야 하네! 어찌다 보니까 갑분아가씨가 이뿐이 아니 이뿐이가 맹진사어른댁 아가씨가 되어 호수건너 마을루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유의해야될 문제의 촛점인즉은 이런 모든 일체의 사실이 절대 비밀이라-- 하는 말썬이야! 즉. 호수건너 마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타곳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되는 맹씨집안 부침에 관한 중대비밀이다 이 말썬야! 알아들
듣겠는가?

[농부 1] 어째 썸이 잘 안맞는덱쇼? 참봉님

[박참봉] 썸이 안맞는다니? 저사람이 일건 설명을 하니까 헛다릴 급는군!

[농부 1] 어째 그런고 하니 참봉님 말썬에 의할진댄 시집가는 아가씨

갑분아가씨데 실인즉은 시집가는 아가씨는 이뿐이다 이 말썬인데 그렇담
시집안가는 갑분아가씨는 뭔가 하는 말썬입죠!

까르르 웃음을 터트릴것 같은 얼굴로 빙글거리며 수근대는 마을사람들

[박참봉] 가 가만 채근 채근이!

[농부 1] 일언이 폐지하면 김판서덕으로 시집가는 건 우리 이뿐이 아닌갑쇼?

[박참봉] 이 이뿐이? (혼란에 빠져) 아 아니지!

[농부 2] 그럼 시집가는건 갑분아가씨가요?

[박참봉] 갑분아가씨 어느갑분아가씨 말인가? 이사람아 물으려면 똑똑히 물어!

[농부 3] 그럼 대관절 누가 시집을 가죠?

[농부 1] 이뿐인갑쇼? 갑분인갑쇼?

[농부 2] 갑분인갑쇼? 이뿐인갑쇼?

[박참봉] 다시다시! 침부터 다시!

[농부 3] 결국 이뿐이가 갑분아가씨구 갑분아가씨 갑분아가씨니까 시집가는
갑분아가씨 이뿐이가 아닌 이뿐이구 시집안가는 갑분아가씨는 갑분아가씨아닌
갑분아가씨 아닌갑쇼?

[일동] 따는!

[박참봉] (완전히 혼란에 빠져) 따는----

맹진사 그보다 앞서 멀찍히 나타나 쳐다보다가 듣다 못해 썸나선다

[맹진사] (일갈한다) 따는? 따는 무슨놈의 따는이야? 너희들이 뭘 알아서
따는이야?

일동 일제히 어깨를 돌이키며 조용해진다

[맹진사] (두팔을 허공에 높이 쳐들고 주먹을 쥐며) 이것봐! 내 썸본으루
깨우쳐 줄테니!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로다

[박참봉] (급히 뛰어나와 착한 생도처럼 혼자서 외운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된다

[맹진사] 하나에 하나를 곱하면 하나로다

[박참봉] (깨달았다는듯이 꼬덕이며) 하나에 하나를 곱하면 하나로다

[맹박] 하나에 하나를 덜하면 쥐뿔도 없으나

하나를 하나로 나누면 하나로다
 [맹진사] (심히 만족해서) 이제 깨우쳤지?
 [일동] 네?
 [박참봉] 네!
 [일동] 네!
 [맹진사] 헛 이렇게 간단한걸 가지구! 그러니 참새대가리들일랑 여러생각
 할것없이 썸의 곱하기와 나누기만 외우면 되는게야! 알겠지?
 [일동] 네!
 [맹진사] 좌우지간에 초례를 치르게 될때 신부가 누구든 아랑곳 할것없이
 받들어 되시면 된단말야!
 [농부 1] 아 언제 저희들이 상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 아랑곳
 했는갑쇼?
 [맹진사] 앵이 육실혈! 그 삼돌이놈 때문에 참봉!
 [박참봉] 예!
 [맹진사] 그 녀석을 단단히 다스려 놔겠지?
 [박참봉] 예! 이젠 염려 붙들어 맵쇼!

맹진사 거드럭거리며 퇴장 뒤를따라 박참봉 아장 아장 퇴장

[농부 1] 하나에 하나? 거 썸치구는 알쏭달쏭한 하나군 그래?
 [농부 2] 양반네 썸본한부 절룩절룩 절룩하구 알쏭달쏭하다니까!
 [아낙네] 양반 세도 좋지만 그 썸두 골치께나 아프겠다니까!

(다시 마을 사람들의 노래와 춤)

[남합] 하나에 하나라
 [여합] 하나에 하나라
 [남합] 알쏭달쏭 하나에
 [여합] 쥐뿔같은 하나라
 [혼합] 양반썸본 까다롭네 꺼떡꺼떡 까다롭네 절룩절룩 까다롭네
 [남합] 양반세도 좋다마는
 [여합] 골치께나 아프겠네
 [혼합] 머리좋은 우리진사 맹진사님 하나썸본
 알쏭달쏭 하여라 절룩절룩 하여라 꺼떡꺼떡 하여라

[장] 제 8 장

[장] 제 8 장 맹진사내 안사랑
 어느덧 가을이다 초례를 하루 앞둔 집안은 잔치준비에 술렁댄다 장작더미며
 술항아리를 안고 드나드는 소작인 농부들 차일을 떠메다가 부러놓는 장정들--
 우측 앞에는 곱단이를 비롯한 앵금이 꺾순이 얹전이등 처녀들이 절구를

내다놓고 떡방아를 찧면서 절구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음악 15] 절구의 노래 (마을처녀들)

[여중] 팔월이라 한가위 익은곡식 걷을적에
한숨이 절로가시고 산짐승도 살이찢다
좋은 찹쌀에 썩을 넣어 팔을 넣고 물감들여
술잎을 꺾어다가 맛있는 송편을 비져보자
호수건너 저 마을로 시집가는 새아씨야
호랑이 시어머니 잔소리 군소리에
꽃분홍 명주치마 눈물로 다적실라
팔월이라 한가위 익은곡식 걷을적에
한숨이 절로가시고 산짐승도 살이찢다
앞산 뒷산이 울긋불긋 노랑 빨강 꽃을꺾어
저고리 치마지어 풀각씨 놀이를 하여보자
풀을 꺾어머리하고 술잎으로 국수말아
풀각씨 절시키면 망건쓴 새 신랑이
꼭지 꼭지 잘 흔들지

이때 맹진사 박참봉과 함께 좌측 후면 객실쪽에서 나타난다

[맹진사] 아니 그럼 여태 예의범절 연습을 못 마쳤단 말인가?

처녀들 큰 함지박에 떡가루를 퍼담아 가지고 중문안으로 급히퇴장--

[박참봉] 안방아씨마님을 어머니라구 조차 부르질 못허니 해먹을 재간이

있어야 말입죠! 이러다간 당장 사돈댁쪽에 탄로나기 십상이라니까요!

[맹진사] 그럼 내가 가르쳐 볼테니 이리 당장 끌어내오게! 헛 고약한 것

같으니라구-----

맹진사 손가락을 찢다 곱혔다 하면서

대청위를 오락가락 하는데 우측으로 사라졌던 박참봉이 이뿐이를 거느리고 우측

안방으로 부터 한씨와 함께 나타난다 새 옷으로 날아갈듯 단장을한 이뿐이

핵달라진 이뿐이의 모습에 맹진사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발한다

[맹진사] 응---- 이거야 말루 핵 판사람이 됐구나!

우리 입 입 아니 갑분이가 과시 미인이로다!

[한씨] (자신도 모르게 눈물지며) 자 어서 아버님에게 큰절을 해봐라!

이뿐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

[한씨] 자 어서 아버님허구 부르구!

[맹진사] 왜 말이 없느냐?

[한씨] 어서!

[이뿐이] 네 마님!

[한씨] 마님? 그렇게 어머니라구 부르라구 가르쳐 줬는데도 또 마님이야?

[이뿐이] 그렇지만 못하겠어요! 난 못해요!

[맹 한] 뭐야?

(노래 어찌면 좋아)

[이뿐이] 달님 별님 말해줘요 나는 못해요

이름없는 풀꽃처럼 미천한 이몸 말없이 다소곳이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도련님속여 귀하신 그 품에 안긴다면

하늘이 노하실 엄청난 큰죄 어찌면 좋아요

나는 못해요

[맹진사] 앵이 고안년!

[한씨]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같으니!(화가 나서 이뿐이를 꼬집는다)

[이뿐이] (비명) 아이구 엄마!

[맹진사] 옳지 엄마가 아니구 어머니다! (한씨에게 눈짓하며) 다시 한번!

한씨 다시 이뿐이를 힘껏 꼬집는다

[이뿐이] 아이구 어머니!

[맹진사] 옳지!

[이뿐이] 용서하세요 나리마님! (운다)

[맹진사] 나리마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이뿐이] 네!

[맹진사] 그럼 이뿐아! 예그 이 망할놈의 정신!

갑 갑분아 이제부터 네가 내딸이라는 걸 꿈에라도 잊어선 안된다 알겠니?

[한씨] 그리구 나보구두 어머니라구 불러야지 마님! 해놓고 보면 모든게 낭패

보는거니까 그리 알으렴!

[이뿐이] (흐느끼며) 예! (고개를 끄덕인다)

[한씨] 시댁은 예절이 세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느니라!

[맹진사] 자 그럼 정식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어디 아버님이라구 불러봐!

[이뿐이] (통곡과 함께 꼬꾸라질듯) 아버님! ----. 어머니!

[맹진사] 아버님? 내가 네 애비냐? 어 참 그렇다 됐다! 되기는 했다만 내가 네

애비라!

[한씨] 어이구 하나님! (울음을 터트린다)

[맹진사] 이거 이거 아닌데! 아냐-----..

제길혈! (한씨에게) 울긴 왜울어? 제길---- 그렇게 허기루 헌걸 가지구----..
앵이----.. (홀쩍거린다)

[박참봉] 아 왜들 이러십니까? 울긴 울긴 왜 울어요? 경사스런 혼인날을
앞두구... (그러다가 역시 홀쩍댄다)

[장] 제 9 장

[장] 제 9 장 맹진사내 안사랑

대청마루 뒤에는 꽃 병풍에 초례를 이룰 예탁이 놓여지고 화문석이 깔린다
예탁위엔 술잔 대추 밤 국수 떡 그리고 한쌍의 와룡촛대-- 뜰 중앙엔 향탁
향합에선 그윽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다 마당 한쪽엔 악사들이 늘어앉아 있다

가까워지는 쉼소리과 말방울소리-- 풍악이 울리고 무대 더욱 부산해지며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 박참봉 숨이 하늘에 닿아 쫓기듯 뛰어든다
맹진사를 찾는다

[박참봉] 마님! 나리마님----..

좌측 중문에서 맹진사대신친척들 들어선다 대청위에 오르는 친척들--

[박참봉] (급해 어쩔줄 몰라) 아저씨 여러분!

그럴때 난삼에 영대를 띄고 맹진사 우측 중문으로 부터 등장 음악 멎고

[맹진사] (불안감을 안고) 뭐야?----.. (사이) 뭣이 어떻게 됐다구?

[박참봉] 그야말로 하늘이 둔갑한 일이 생겼읍니다요 듣던 소문과는 획
판관이니 장차 이 일을----.

[맹진사] 잘못 봤겠지?

[박참봉] 제 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읍니다!

[맹진사] (불안으로 창백해지며) 비켜라! 백문이 불여일건이야!

맹진사 쫓아나가다가 뒷걸음질--

[무용 16] 청사초룡의 행진 (총각들)

손에 손에 청사초룡을 든 선두 들어선다 풍악이 이어지고 군정들 등장 좌측에
늘어선다 뒤이어 기덕아비 기덕아비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찌를듯 필력이는
일산을 따르게 하고 사모관대로 정장한 미언이 반쯤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다

정정한 체구의 대장부 역쇠 아니 미언 바로 그다

[맹진사] 그댄가? ----. 그대가 진정 미언인가?

[미언] 그렇습니다

[맹진사] 뭐? 그대가 우리사위 미 미언이라구?

한씨 슬며시 중문밖으로 나오다가 기겁을 한다 맹진사 급히 뒤로 돌아가 미언의 등을 쓰다듬어 본다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듯 몇번이고 눈을 부비고 쓰다듬고 마침내 주저앉아 미언의 다리 하나씩을 검사한다. 맹효원 한씨 다함께 달라들어 시선은 허공을 향한채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더듬고 만져본다 체면도 염치도 없다 박참봉도 뒤질세라 더듬어 본다 맹진사 다시 일어나 저만치 떨어져서 미언을 손짓해 부른다 미언 맹진사의 요망대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점잖게 걸어 보인다 음악이 코믹하게 발걸음을 쫓는다

[맹진사] 다시 한번 뒤로도랏! 앞으로 갔! 뒤로돌아! 우로돌아! 좌로돌아!
바로돌아! ---

음악 고조되는데

[맹진사] (절망적으로) 아이구 맙수사 넘나하 여보게 그럼 자네는 병신이 아니었던가?----. 내사원 병신야 곱추에 절름발이 배안의 병신이란 말야!

[미언] 그렇다면 이 댁은 맹진사댁이 아니고 탄집인가요? (뒤를 돌아보며) 작은아버지! 제가 길을 잘못 든게 아닌가요?

[맹진사] 뭐?----..

[치윤] (가리고 있던 부채를 내리고 밝게 웃는다) 그럴리가 있겠느냐? 이댁이 바로 맹진사어른 댁이다

[맹진사] (그제서야 치윤을 알아보고) 다 당신은 언젠가?----..

[치윤] 사돈어른 그렇습니다 언젠가 길이 늦어 하룻밤 신세질뻔한 일이 있었읍죠! 그때 제가 누군지 아신다면 사돈어른께서 너무 신경을 쓰실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그만 용서하십시요!

[맹진사] 세 세상에 이런 노릇 봤니?

(우측 중문쪽으로 뛰어가며) 애, 갑분아! 아, 아니 삼돌아!

[삼돌이] (불멘소리로) 삼돌이 안죽었다닝께유! (술이 취해서 나온다)

[맹진사] 이놈아 지금이 어느때라구 술만 처먹구 이러니? 냉큼 달려가 갑분아가씨 모셔오너라!

[삼돌이] 갑분아가씨요? 행 안방에 있잖아유?

[맹진사] 이놈아 그 갑분----. (손으로 자기 입을 막으며) 이 바늘구녕 같은 놈아 (소리죽여) 진짜말이다 진짜-----

[삼돌이] 글썸 누가 아니래나유? 진짜 말씀에유 마님께서 다 그렇게 맹글어

농구선 행!

[맹진사] 아이구 이 맹추야! (긋속말)

[삼돌이] (정신이 번쩍들어) 예? 그게 정말인가유?

[맹진사] 오냐! 냉큼 모셔오너라! 그럼 (소리를 죽여) 이뿐일 내주마!

[삼돌이] (환희) 예? 진짜 이뿐이름요?

삼돌이 총알처럼 좌측으로 튀어나간다 맹진사 숨을 돌리며 미언이 서 있는 쪽으로 돌아온다. 미언 조용히 그리고 근엄히 기러기를 받아서 예를 행한다 다시 풍악이 울리는데 맹진사 박참봉에게 눈짓하여 미언을 대청위에 오르게 하고 함께 오른쪽 방으로 들게한 다음 소리친다

[맹진사] 뭣들 하는게냐? 시간을 끌라구! 시간을 끌되 흥겹게 끌라 그거야!
(맹노인의 방으로 뛰어 들어 간다)

맹노인의 노발대발하는 고함소리--

[맹노인]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이목이 부실한 나를 속여 옥같이 길러낸 무남독녀 외동딸을 꼽추 절름발이 한테 어쩐다구?

[맹진사] (소리만 급해서) 아네요 아버님!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맹노인] 네 이놈! 딸 자식을 돈받고 병신한테 팔아넘겨?

맹노인 해골 그림자같이 오들오들떨며 대청마루로 나온다 맹진사 등에 무엇인가 넣고 사연을 풀이 하려 했던 듯 찢찢매며 쫓아 나온다.

[맹노인] 어떤놈이냐? 언감생신두 유만부동이지 그 주제로 내집에 장갈 들러와?

[맹진사] 고정하세요 아버님! 글썸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급사등을 하고 어쩔줄 모르다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맹노인] (흥분해서) 안된다! 못한다! 김판서가 아니라 영의정 대감이래두 안돼! 어서 그놈을 내 앞에 대령시키지 못하겠나?

이때 미언 다시 나온다 맹진사 당황하다 못해 기절초풍한다 미언 돌계단 아래 내려가 공손히 읍한다

[맹노인] 오 네놈이냐? 아니 그런데? 어디 좀 돌아서 봐라!

미언 조용히 돌아섰다가 되돌아 서며 정중히 읍한다

[맹노인] 이게 웬일이냐? 한번더 이제처럼!

미언 같은 동작

[맹노인] (버럭 화를 내며 맹진사를 노려본다) 이놈! 태량아 네가 또 멀쩡한 거짓말루 날 속였구나!

[맹진사] 그런게 아니구 아버님----. (귀에 대고 뭔가 말하려다가 환멸을 느끼고) 어유 이 노릇을 어쩐담!

[맹노인] 엑기 이 불효 불측한 녀석 같으니라구! 늙은 애비 속이길 떡먹듯해!
(그러다가 부드럽게 미언을 향해) 자 내가 모르고 한 말은 개의치 말구
이리 내곁으로 올라 오너라! 판서대감께서 아드님 한번 훌륭히 두셨구나!

[미언] 감축합니다

[맹진사] 아버님!

[맹노인] 내 이놈!

미언 대청위 맹노인 곁으로 오른다

[맹노인] 맹문가의 경산데 왜 어서 초례를 올리지 않구 시간을 끄는 게냐?

[맹진사] (어쩔줄 몰라) 예! 곧 방금 잠깐만 아버님!-----

[맹노인] 아 뭘해? 이놈 태량아!

[맹진사] (절망적으로) 아버님! (다시 뛰어가 꺾속말을 하려다 환멸) 어유 이 노릇을! 참봉! 뭘하나? 어서 문밖을 줌 어이구----

[맹노인] 오냐! 너희들 모두가 내 마지막 경사인 이번 초례는 내손으로 올려 주기를 바라는 구나! 그럼 그렇다구 진작 말을 할게지 참봉!

[박참봉] 아 예!

[맹노인] 어서 우리 신부를 데려와야지!

[박참봉] 예! (울상이 되어 맹진사에게) 나리마님!

[맹진사] 차 참봉!

[맹노인] 텍기 불효 불측한 것들! 무슨 대꾸가 그리 수다스러우냐?

냉큼 서둘지 못할까?

[박참봉] (맹진사에게) 마님!-----.

박참봉 울상이 되어 우측 중문안으로 들어간다

[맹진사] 어이쿠 참봉! 기여쿠----.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이윽고 녹의홍상에 현란한 활옷을 입고 쪽도리를 쓴 신부차림의 이뿐이가 손어멈(수모)의 안동을 받아 풍악을 타고 중문에서 나온다 금빛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리웠다 손어멈의 지시대로 맹노인에게 공손히 큰 절을 한다

[노래] (노래 내 귀여운 손녀딸)

[맹노인] 내 귀여운 손녀딸아 네 팔자 활짝피어
김판서댁 높은 집에 맡겨누님 되었구나

[일동] 아가씨는 정경부인 지체 높을시고
[맹노인] 내 어여쁜 손녀딸아 새 신랑 보아하니
 옥골선풍 무색쿠나 봉황새가 무색쿠나
[일동] 아가씨는 정경부인 지체도 놓을시고
[맹노인] 오 내 귀여운 손녀딸아

네 이제 명문 김관서댁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느냐?
손어멈의 안동받아 예탁 앞으로가 미연과 마주선다 이뿐이 크게 두번 절하고
주저앉아 머리를 들지 못한다 미연 답례하고 마주 앉는다 손어멈 이뿐이 손에서
술잔을 받아 미연에게 건네고 술잔 가득히 술을 붓는다 미연 술잔을 비우고 다시
손어멈을 거쳐 이뿐이에게 돌린다 이뿐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떠는데 손어멈
정성스럽게 술을 부어준다 잔을 비우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는 이뿐이
수모 뭐라 타이르지만 이뿐이 여전히 흐느끼고 있다 마침내 술잔을 와락
떨어트리고 와락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뿐이 주위의 반응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버선발로 돌계단을 뛰어내린다 무대는 이내 큰 혼란에 빠진다
[이뿐이] 못해요! 전 못해요!

이뿐이 이리갈까 저리갈까 망서리다가 좌측 행랑방쪽으로 미친듯 달려간다

[맹진사] 이 이 입---- 갑분아!

맹진사 급히 이뿐이 뒤를 쫓으려는데 삼돌이가 갑분을 이끌듯 하고 혈레벌떡
들어닥친다
[삼돌이] 나리마님!

대청에서 이 모든 것을 보 고있던 미연 말없이 내려와 맹진사와 갑분이 쪽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의미있는 미소를 띄우며 이뿐이가 사라진 쪽으로 걸어간다 한씨가 다시 우측
중문에서 총알처럼 튀어 나온다

[한씨] 아이구머니 하느님 맙소사! 그쪽은 행랑방일세! 여보게!

맹진사 완전히 절망해 어찌할 바를 모른다 스포트가 얼이 빠진듯한 맹진사의
얼굴을 잡다가---

[장] 제 10 장

[장] 제 10 장 맹진사네 안사랑

등근 달이 대낮처럼 밝은 밤이다 이뿐이 녹의홍상 위에 활옷을 입은채 방에서
뛰쳐나온다 미연 이뿐이를 끝내 달래지 못하고 방에서 나온다

[미연] 갑분아가씨! 우리가 천지신명께 백년해로를 맹세한 부부라 할망정

그것은 일종의 형식에 불과한 것 피차에 사랑이 없다면 이야긴 다른거요
갑분아가씨! 내가 싫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해주구려! 왜 대답을 못하오?

[이뿐이]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

[미언] 그런데 아니면?----..

[이뿐이] 도련님! 전 전 갑분아가씨가 아니라 갑분아가씨의 몸종이란 말에요!
도련님은 그것두 모르시구 자꾸만----. (흐느낀다)

[미언] ----.

[이뿐이] 용서하세요! 도련님은 꾀추에 절름발이라구 우리 아가씨 죽어두 싫다
하시구---- 그래서 하는수없이---- 이 천한 것이 죽는셈치고----

[미언] 음----.

[이뿐이] 차라리 차라리 도련님께서 아무도 시집와 주는 색씨도 없는 가엾구 쓸쓸한
양반이셨더라면 그랬더라면 ----. (더욱 흐느끼며) 용서하세요! 죽을 죄를
졌당께요

[미언] (그제서야 밝게 웃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용서를 받을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이뿐이] 예? (놀라 돌아본다)

[미언] 놀라지 마오! 실상 이번 일을 그렇게 꾸민 사람은 나요! 내가 바로 작은 아버지랑
함께 내가 꾀추 절름발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단 말이오!

[이뿐이] (더욱 놀라) 예? 아니 그럼? 무슨 까닭으로 왜 그런 소문을?----.

[미언] 사람들의 무게와 깊이를 부귀와 영화보다 착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15년전 무고한 모함으로 세상을 떠난 아가씨의
아버님 풍암대감의 충혼을

[이뿐이] 아니! 어찌면 그런 사실까지

[미언] 이제 숨길게 없습니다. 풍암대감의 무고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깐요.

[이뿐이] 예?

[미언] (소매끝에서 간직했던 옷고름을 꺼내 펼치며) 이 뜯어진 옷고름이
누구의 것인가 알겠오?

[이뿐이] 예? 아니 그 옷고름은? 그러니까 도련님이 바로?----.

[미언] 미안하오 너무 놀라게 해서! 그렇소 억쇠로 변장해서 내 본심을
말했던것도 바로 나요! ----

[이뿐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미언] ----.

[이뿐이] 전 뭐라 말씀 하셔두 전 역시 천한----.

[미언] 아니오 이제 그대는 종도 아니구 아가씨도 아닌 내 아내요! 이뿐이!
이제부터 도련님이라구 부르면 안되오! 나는 그대의 지아비! 그대의 남편이오!

[이뿐이] 네? (환희와 아픔이 엇갈리는 얼굴)

[음악 18] 그대는 내보배 (미언)

[미연] 그윽한 그눈동자 이슬을 머금고
앵두빛 고운입술 수줍어 떨고있네
그대는 내 기쁨 그대는 내 보배
둘이서 손을 잡고 푸른들녘 거닐면서
젊은이의 즐거운노래 불러보리라
그런듯 돌아서서 고개를 떨구고
조그만 두 어깨가 수줍어 떨고있네
그대는 내연인 그대는 내 아내
둘이서 손을 잡고 꽃핀 들녘 거닐면서
젊음의 부푼꿈을 가꾸어 보리라

[음악 19] 뜻대로 하세요 (이뿐이)
[이뿐이] 부푸는 이 가슴이 터질듯 뛰는데
어쩌면 좋아 아 어쩌면 좋아 뜻대로 하세요
님께서 꺾으신 이름없는 한떨기 꽃
아름찬 품에안겨 울고만 싶어라
그품에 안겨서 죽고 싶어라
메마른 갈잎처럼 뜨겁게 불붙는데
어쩌면 좋아 아 어쩌면 좋아
님께서 갖으신 들에 널린 한떨기 꽃
아름찬 품에 안겨 울고만 싶어라
그품에 안겨서 죽고 싶어라

[미연] 이뿐이!
[이뿐이] (안기며) 도련님!----.

사랑의 뚜엿이 사랑으로 무르익으며 이끌듯 끌리듯 방으로 들어서는 두사람--
이윽고 방문이 닫히고 꿈결같이 아기자기한 사랑의 애무가 그림자로 드러난다
이때 맹진사 한씨 갑분이 중문안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어선다 한겹 또한겹--
그리고 또 한겹--
신부의 옷을 벗겨가는 신랑-- 음악이 장단을 맞추고 그때마다 자즈러지는
세사람-- 갑분이가 몸부림을 친다 이윽고 방에 촛불이 꺼진다

[갑분이] (주저앉으며) 나 몰라! 난 몰라!
[한씨] 애비 잘 둔덕에 잘 망한다 잘두 망해!
[맹진사]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아이구 맹진사야!

[장] 제 11 장

[장] 제 11 장 돌다리가 걸린 마을어귀

[무용 20] 축제의 춤

단풍에 물든 마을 어귀에서 장고와 북과 소고등이 어울려 더없이 흥겹고 화려한 춤이 펼쳐진다 이윽고 나타나는 신혼행렬-- 말을 탄 신랑 앞서고 뒤에 신부의 가마가 따른다.

일산을 든 사람과 짐꾼들이 길게 뒤를 따른다 마을 사람들의 합창이 무대에 메아리 친다

[음악 21] 시집가는날 (마을남녀)

산과들 빨래터 가는곳 마다

화사한 햇살처럼 밝음을 가져오는

이뿐이 이뿐이

어여쁜 얼굴처럼 마음씨 고운 이뿐이

동방화촉 꿈결같은 밤 꽃처럼 활짝피네

논과밭 우물터 가는 곳곳마다 바람과 소근대며

웃음을 날라주는 이뿐이 이뿐이

상냥한 얼굴처럼 사랑스런 이뿐이

동방화촉 꿈결같은 밤에 꽃처럼 활짝피네

귀여운 이뿐이 사랑스런 이뿐이

우리꿈 이뿐이

신혼행렬 멀어지며 흥겹고 화려한 휘나레--- 서서히 막이 내린다